

신행수기 당선작 (천태종 총무원장상)

저 언덕을 향하여 ①

정유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나는 기독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50대의 가정주부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는 권사였으며 현재 오빠는 장로이다. 한마디로 친정이 전부 기독교 집안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조상님을 받들고 제사를 지내는 유가(儒家)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재건교회의 창립멤버로 참여하시면서부터 나의 집은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렸다. 아버지는 제사를 지내는 큰집을 비롯하여 다른 어떤 집에도 못가게 하여 우리 7남매는 외딴섬에 사는 고아신세나 다름없이 되었다. 이리다 보니 친족간의 정이도 끊겨버렸고, 사촌들과의 우애마저 사라져 냉랭한 사이가 되어버렸다. 어릴 때 큰집·작은집 다니면서 세배하던 일, 사촌들과 정답게 지내던 모든 일들은 까마득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이런 갑작스런 일들은 우리 7남매의 정서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쳐 모든 생활에 안정성의 결여를 가져왔다. 하는 일도 성의할 곳이 없어지고 경조사가 있어도 친인척간의 내왕이 끊겨 쓸쓸하기 짝이 없는 행사가 되고 말았다. 일주일에 6일은 일하고 7일째인 일요일에는 일도 하면 안 되었다. 돈도 쓰면 안 되며 오직 성경만 읽고 기도할 하며, 아침은 금식하면서 6일동안의 잘못된 일을 회개하는 가족예배를 본 후 교회에 나가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다. 그후 나는 혼인을 하였다. 그러나 같은 교인 집안에 못가고 전통적인 유가

가문에 혼인을 하게 되어 나의 생활양식은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 절대로 참석하지 않던 제사에도 참석하게 되었고, 또한 시가죽 조상묘소에도 함께 하게 되고 보니 내 생활은 일대 변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 생활이 단번에 변할 리는 없었고 왔다갔다 하는 이중생활에 처하고 말았다.

결혼후 나는 삼형제를 두었는데 친정아버님은 일요일만 되면 큰애(6살)를 데리고 교회(그때 교회에서는 빵과 우유를 주었음)에 가면서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였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나와 애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굳이 싫어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갈 때마다 우리 가족, 특히 남편이 같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남편은 등산을 즐겼는데 가는 곳마다 그곳 사찰의 현판이나 부처님의 상(불상)을 사진으로 찍어와서 글씨가 어머니 불상이 어머니 말해주었다. 그래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뿐 아니라 남편은 여행을 가면 반드시 염주를 사오거나 향통 등을 사왔으며, 더욱이 일요일만 되면 독경 테이프를 틀어놓고 아이들의 아침잠을 깨우고 밤중에는 독경 소리를 들으며 명상에 잠겨곤 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불자라고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해 여름방학 큰애가 교회 학생부에서 주최하는 캠프에 가게 되었는데 거길 다녀온 후부터 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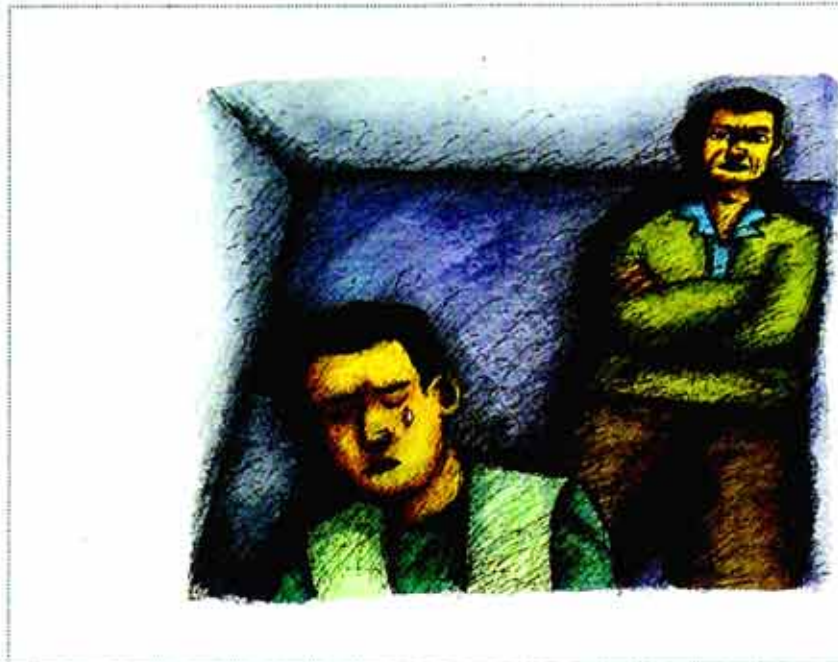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교회는 대학입학후 다녀라. 그게 싫으면 이 집을 나가라” 남편은 최후 통첩을...

생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러더니 집만 있던 애에게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자 가족이나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던 남편이 기만 있을 리 만무했다.

“싱... 한아, 이제부터 교회에 나가자 말아라. 너의 학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남편은 조용하게 큰애를 타일었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가 “아버지, 종교에는 자유가 없습니까?” 하며 반항을 하였다. 이런 정말

우리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큰 변화를 암시해 주는 서곡인지도 몰랐다. 애지중지하던 장남이 이렇게 빛나기 시작하자 집안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남편과 아들은 대화마저 잘 하지 않고 서먹서먹하게 변해버렸다. 큰애는 개선되기는 커녕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자 남편은 “싱한아! 교회 같은 데 나가 회회덕 거리다가 너 장래를 망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 대학에 입학한 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여라. 만약 그것이 싫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 네 마음대로 하고 이 집을 나가거라.” 남편은 경고성이 강한 소리로 최후통첩을 내렸다. 이때 나의 심정은 정말 백척간두에 선 듯하였다. 큰애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렸고 나의 두 뺨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착잡한 심정이었다. 완고한 남편을 설득할 수도 없고 빛나가기 시작한 아들을 그냥 둘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큰애가 일류대학에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고 말씀하시던 담임선생님, 의대를 보

낼까 공대에 보낼까, 행복한 고민을 하던 나였다. 성격이 다정하고 불임성이 많은 큰애는 그때부터 빛나가기 시작했다. 호수같이 고요하던 집안은 큰애 때문에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는 듯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절벽 위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자유훈을 시간에 아들은 학교에는 가지 않고 주변을 헤매다 녀고 오락실에 가있기 일쑤였다. 아이의 성격은 점점 떨어졌다. 아들에 대한 가슴 아픈 불신, 남편이 방에 있으면 아들은 마루에 나가고 아들이 방에 있으면 남편이 마루에 나가고...

“더... 육이 고등학교 1학년인 둘째와 중학교 2학년인 셋째가 있는데도 큰애 때문에 항상 집안 분위기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큰애는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공대 기계과에 입학하였다.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큰애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나의 몸과 마음은 안정되지 못했다.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있던 터라 일요일마다 남편을 따라 망월사(도봉산)에 갔다. 눈은 뜨고 있어도 아래만 보고 다녔다. 함으로 내키지 않는 할 수 없이 가는 발걸이었다. 우상이다. 제사를 지내던 지옥간다 등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들은 나를 긴장시키고 무서움에 떨게 했다. 배가 고피도 공양간에 들어가 공양을 할 수가 없다. 먹으면 체할 것같은 기분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남편도 말없이 나와 같이 행동을 했다. 그 무렵 큰애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불안한 상태였다.”

“부처님, 우리집 장남, 우리집 기둥인 성한이를 지켜주세요” 하며 부처님께 절하고 또 절했다. 무서움에 부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어 눈을 감고 절하다 보면 어느새 열목을 향해 절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이렇게 108배를 하고 나오면 언제나 법당 앞 나룻기지에 앉은 까치가 우리를 반기듯 짓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까치도 우리를 즐겁게 맞이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계속)

경전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 전통經床의 실용화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원 · 스님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 읽기 · 자녀들의 학습

■재질 : ASH(느릅 원목)
■규격 :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가격 : 8만5천원



구입문의 :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주문(http://mall.buddhapia.co.kr) <http://mall.buddhapia.co.kr>

윤장대에 願(원)을 실어 돌려라 ~ 이루어지리라

윤장대(보물 제684호)를 돌려서 무명을 밝히자

예천군 운문면 소재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범보대찰 운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화엄도량 운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운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단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전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여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운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운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염장이 소멸되고 각각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운문사는 움직이는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9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보물 684호)



주 지 청 안 합 장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대찰 소백산 운문사

문의 : (0584)655-8695(중무소), 655-1010, 8405 (02)582-4665, 522-0770 서울포교당 정안사

· 운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에 방문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